통일화보

1호 주체110(2021)년 (1－2월)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빛나는 애국충신의 고귀한 삶

1호 주체110 (2021)년 (1−2월)

절세의 위인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진행 14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6

조국의 현실

질풍노도쳐 나아가자,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18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 펄펄 끓이며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총매진하자 22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갈 기세드높이 24

복받은 대청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안고 26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갖가지 질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28

수도시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29

나라의 음악발전에 기여할 종합적인 민족악기생산기지 30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개발한 박사지배인 32

공화국의 첫 녀자국제레스링심판원 34

중생대의 새화석 발굴 40

선전화 《온 민족이 자주통일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해외동포소식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빛나는 애국충신의 고귀한 삶 36

애국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가며 38

8

18

22

36

26

앞표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실현할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있는 평양시군민련합대회

뒤표지: 흰눈덮인 신계천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주체110(2021)년 1월 10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조 선 로 동 당 제 8 차 대 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회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관련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것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내부적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본 대회를 통하여 재확인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의지입니다.

김 정 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폐회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든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정확하게 령도하고 있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줄기차게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김 정 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
강화발전시키자!

일심단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동당
제 8 차대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보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보고를 결속하시면서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군들속에 내재하고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수 있게 되였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되였다고 언명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혁명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위협하고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을 단호하게 수술해버릴 혁명적의지와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함에 대하여》와 넷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해설〉 심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으며 이어 다섯째 의정 《조직문제》를 심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끊임없이 투쟁하며 혁신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강력히 추동한 력사적인 회의로 우리 당과 주체혁명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과별협의회가 있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광명성절기념공연을 관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질풍노도쳐 나아가자,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에 온 나라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불의 대하가 흐르는 용해장들과 대화학공업기지들, 증산의 동음 우렁찬 발전소와 수천척 지하막장을 비롯한 온 나라의 전구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워가는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애국열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용암처럼 타오르는 결사관철의 불길은 올해에 기어이 다수확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안고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전야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각지의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마다에서도 타오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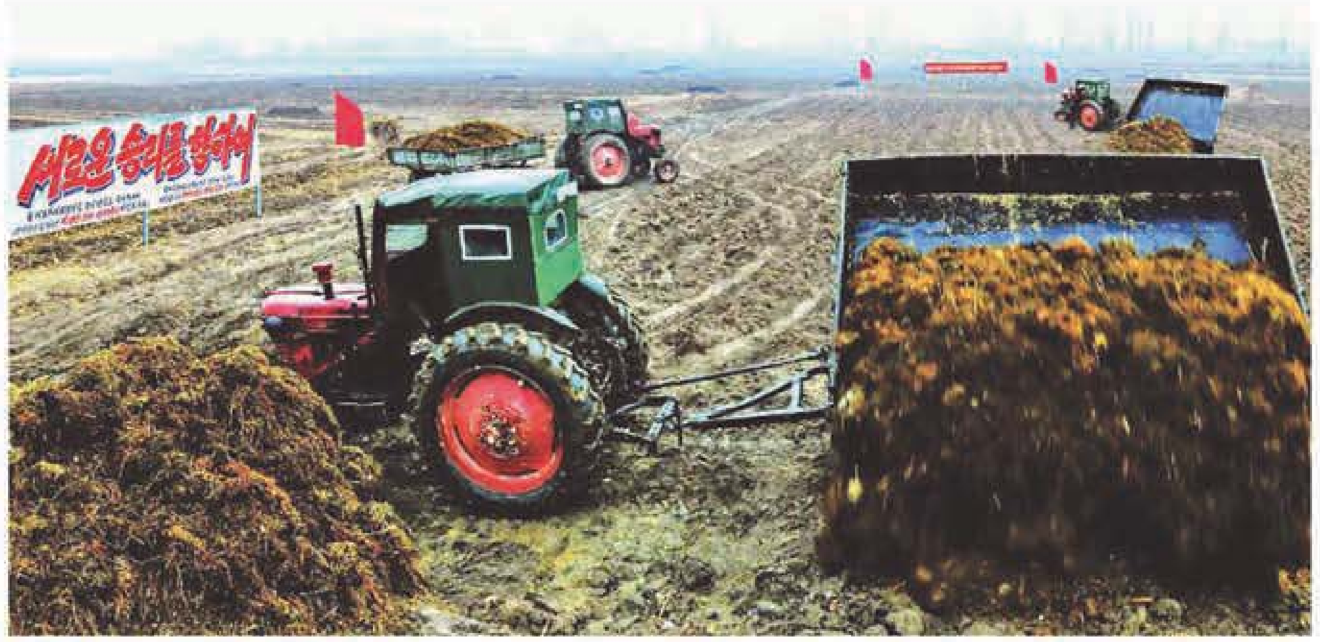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통하여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받아안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무한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전진과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정보화 과학화
주체화 현대화

자력갱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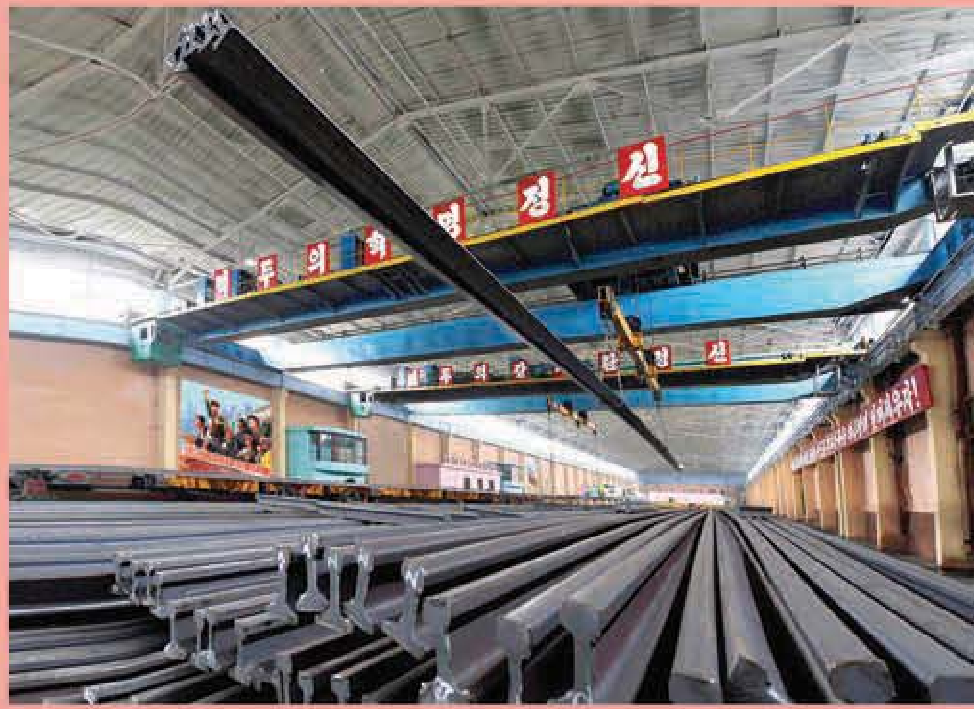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 펄펄 끓이며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총매진하자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주체110(2021)년 2월 2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궐기모임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갈 기세드높이

-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의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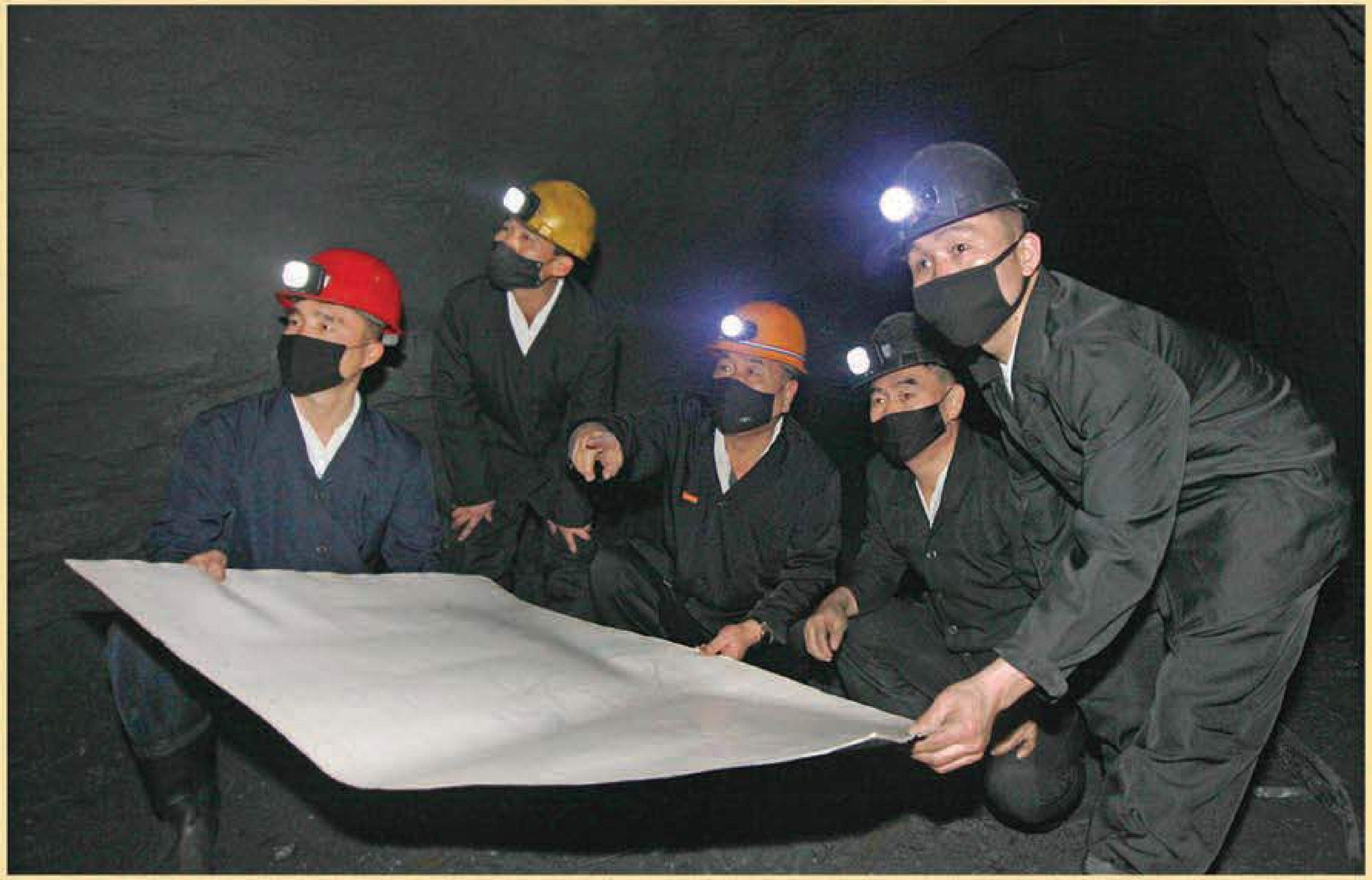
탄광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일군들부터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침식도 같이하고 교대작업도 함께 하면서 종업원 모두를 석탄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굴진을 맡은 김혁청년돌격대에서는 각이한 암질조건에 따르는 중심구멍확공에 의한 새로운 발파방법을 도입하여 굴진순환당 진도를 높여나가고있으며 채탄장들에서는 수평중단붕괴식채탄법을 비롯한 앞선 채탄방법을 도입하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그리고 운반갱과 벨트갱에서는 운반능력개선을 위한 삭도화공사와 벨트콘베아신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생산성과를 안받침하고있다.

오늘 천성청년탄광에서는 생산한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보내주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복받은 대청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안고

-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협동농장 -

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솟아난 사회주의선경마을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은파군 대청리의 농업근로자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농사를 잘 지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거름더미이자 곧 쌀더미라는 자각을 안고 집짐승배설물, 풀거름, 개바닥흙을 비롯한 자급비료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벼모판만들기를 결속하고 활창대와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우량품종의 종자도 충분히 확보하였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알곡소출을 낼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농기계수리정비와 관개시설보수정비도 빈틈없이 진행하고있다.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대청리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올해농사차비성과는 나날이 확대되여가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송영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갖가지 질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 평양곡산공장 -

수도시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 류경버섯공장 -

나라의 음악발전에 기여할 종합적인 민족악기생산기지

- 평양민족악기공장 -

평양민족악기공장이 새로 일떠서 생산을 시작하였다.

공장에는 악기부분품을 정밀가공할수 있는 목재종합기계실과 철재, 공무가공실들 등이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CNC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현악기생산공정, 목관악기생산공정, 타악기생산공정이 확립되여 옥류금, 어은금, 가야금, 장새납, 저대, 북, 장고를 비롯한 각종 민족악기를 제작할수 있으며 검사공정과 포장공정도 꾸려져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체음악예술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 민족악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드높은 열의를 안고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사진 방철국, 글 한진아

결
선질후량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개발한 박사지배인

- 토성제약공장 지배인 박사 김영권 -

토성제약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생산하는 이름난 공장이다. 공장이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한데는 김영권지배인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함흥약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어느 한 제약공장의 약제사로 일하다가 20여년전부터 이 공장 지배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공장의 실태는 매우 어려웠다.

그는 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울 결심을 품고 공장경영관리로부터 건축공학, 기계공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인 지식의 탑을 쌓아가며 하나둘 생산능력을 확장해나갔으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고려약들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였다.

무압력순환식추출기와 진공저온추출기 등 약초들에 들어있는 약성분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추출해낼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설치할 때에도, 새로운 고려약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언제나 앞장에는 그가 서있었다.

공장전반을 돌봐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자기가 직접 약초도 채집하고 그 성분들을 분석해보며 탐구와 열정을 바쳐 개발한 《토성청혈환》을 비롯한 공장제품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국제상품박람회와 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최우수상과 우승컵들을 받았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인 그는 이 나날 《토성청혈환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론문을 완성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을뿐아니라 지난해에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올해 66살의 김영권지배인은 우리 인민들의 무병무탈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고려약들을 만들어낼 열의안고 사색과 창조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김영권지배인이 수여받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져있는 금반지

김영권지배인이 받은 박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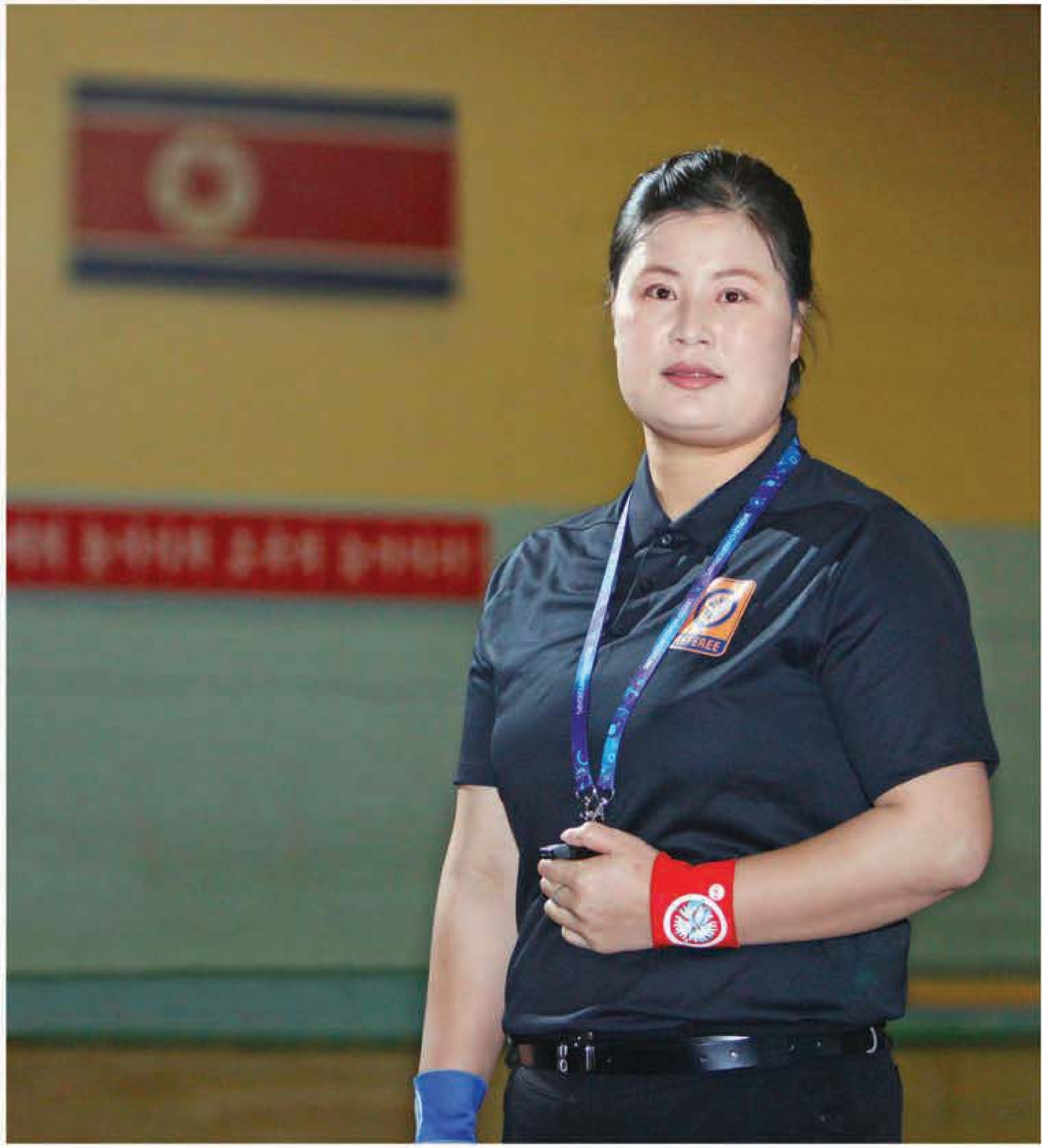
약초채집을 위해 산발을 오르내리는 김영권지배인(2019년 9월 촬영)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고려약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열의에 넘쳐있는 김영권지배인과 종업원들

공화국의 첫 녀자국제레스링심판원

- 대외경제성체육단 녀자레스링감독 최정복 -



대외경제성체육단 녀자레스링감독이며 공화국심판원인 최정복은 우리 나라의 첫 녀자국제레스링심판원이다.

어릴적부터 서성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기계체조를 배워온 그는 공화국에 녀자레스링종목이 생기자 대외경제성체육단에서 레스링선수생활을 시작하였다.

육체적준비가 좋고 운동감각이 뛰여난 그는 2007년 청소년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 55kg급경기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금메달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그후 2009년과 2011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 55kg급경기들에서 각각 순위권에 입선하여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훈련도중 부상을 당하여 더는 선수생활을 할수 없게 되자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졸업후 공화국에서 녀자레스링종목의 첫 녀성감독, 심판원으로 되였다.

그는 레스링선수후비육성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한편 국내경기들에서 공정하면서도 정확한 심판활동을 벌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우기 2019년 그루지야에서 진행된 35살이상 세계로장선수권대회의 국제레스링심판시험에서 그는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 국제심판원들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2월 국제레스링심판원으로 등록된 최정복의 앞으로의 심판활동에 대한 레스링전문가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한다.

사진 장창옥, 글 한진아

2019년 공화국선수권대회 녀자레스링 62kg급 결승경기의 한 장면

⇑⇓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우수한 녀자레스링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1 여러 나라의 국제레스링심판원들과 함께(뒤줄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2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지도와 방법을 적극 창안도입하기 위해 정열을 바쳐가는 최정복심판원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빛나는 애국충신의 고귀한 삶

-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 리진규선생 -

리진규선생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친 총련의 원로이고 견결한 애국충신이였다.

1917년 12월 경기도 룡인군의 빈농가정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던 그는 품팔이로 학비를 모아 보통학교와 상업학교를 나온 후 1939년 망국노의 설음안고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였다.

이역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다가 그는 조국해방을 맞이하자 애국의 마음안고 동포자녀들에게 조선말과 글을 배워주기 위하여 도꾜에 국어강습소를 내오고 전임교원으로 사업하였으며 이때부터 근 반생을 민족교육사업에 열중하였다.

이 나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재일조선교원동맹 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육부장, 조선대학교 학장으로 사업하면서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제1부의장의 중책을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헌신분투하였다.

그가 불편한 몸으로 총련 제17차 전체대회준비사업을 위해 정력을 쏟아붓다가 7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애석해하시며 총련에서 진행하는 장례식에 맞추어 평양에서도 추모회를 거행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도 보내주시였으며 생전의 념원대로 고인의 유해를 평양의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속에 오늘도 리진규선생은 온넋을 바쳐 사랑해온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글 한진아

리진규선생과 함께 남조선신문 《한겨레》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8(1989)년 4월

총련일군으로 사업하고있을 때의 리진규선생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리진규선생부부에게 배려하여주신 금시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리진규선생에게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서술된 도서 《장군님과 재일동포》중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진규선생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화환과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은 그의 자손들(2017년 12월 촬영)

애국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가며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리보배동포 -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에서 살고있는 올해 90살의 리보배녀성은 수십년간 재중조선인총련합회조직강화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몸바쳐온 애국적인 동포녀성이다.

그는 벌써 20대의 젊은 시절에 녕안시해외공민사업을 솔선 맡아안고 하루에도 근 100여리를 오가며 농촌과 산간지대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한명한명 찾아내였으며 끝끝내 녕안시지부를 보란듯이 꾸려놓았다.

지부를 통해 동포들은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한가정처럼 화목해졌다.

리보배녀성은 오래동안 녕안시 지부장으로 사업하면서 지부에 단합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흐르게 하는 한편 점차 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을 위한 마음이 싹트고 자라게 하여 동포조직을 조국의 숨결로 맥박치는 애국조직으로 굳건히 다져놓았다.

자신과 가정의 삶을 조국의 운명과 이어놓고 60여년간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온 리보배녀성은 2019년 2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았다.

오늘도 리보배녀성은 로당익장하여 동포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리대성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한 리보배동포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네번째 2016년 8월 촬영)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광명성절경축공연을 관람하는 리보배동포(앞줄 왼쪽으로부터 두번째 2019년 2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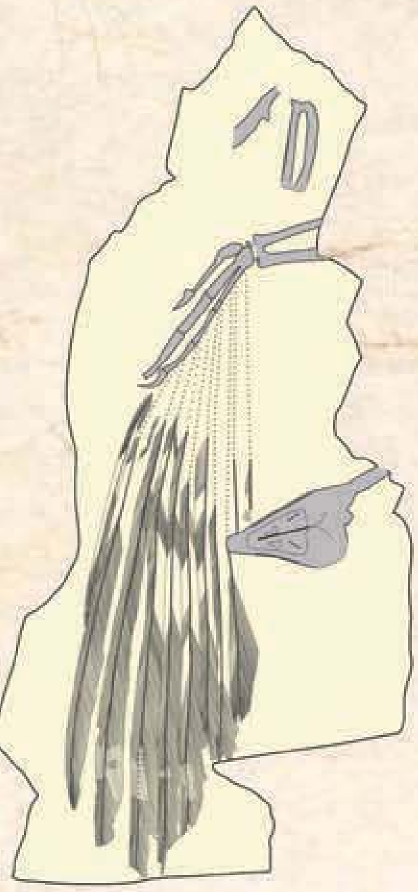
조국통일상을 수여받는 리보배동포(2019년 2월 촬영)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오른쪽으로부터 첫번째 2017년 1월 촬영)

남편과 함께 조국방문의 나날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리보배동포(2011년 8월 촬영)

중생대의 새화석 발굴

깃을 보존한 새화석



깃을 보존한 새화석의 세부구조도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고생물학연구집단이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중생대의 새화석을 발굴하였다.

연구사들은 백토동화석보호구의 위치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백토동지구에 분포되여있는 중생대 백악기 하세층에 속하는 신의주주층의 3번층(약 1억 3 000만년전)에서 새의 대가리뼈, 발가락뼈, 날개의 1차날깃 11개와 작은 깃가지들까지 선명하게 보존되여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화석을 찾아냈으며 날깃의 형태구조적특징으로 볼 때 날아다니는데 적응된 새라는것을 학술적으로 고증하였다.

이와 함께 공룡이발화석과 원시포유동물화석, 물고기화석 등을 발굴하고 지금까지 발굴된 척추동물화석, 무척추동물화석, 식물화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백토동지구가 중생대의 우리 나라 모든 척추동물들이 출현한 곳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중생대 백악기하세를 대표하는 신의주생물군을 새로 설정하고 우리 나라의 중생대 생태환경연구에서 학술적의의가 있는 백토동화석보호구를 다시금 새롭게 확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화석으로 발굴된 중생대의 새를 《백토새》로 명명하도록 해주시고 유원지총국 자연박물관에 전시하여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깃을 보존한 중생대의 새화석이 발굴고증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인류의 발상지일뿐아니라 조류의 발상지라는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확증할수 있게 되였다.

글 송영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발굴된 화석들의 일부

선전화 **《온 민족이 자주통일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 루계 402 ❖ 낸곳 통일화보사 ❖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496ㄷ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